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동배** 조학래***

- I. 서론
- II. 청소년과 자원봉사활동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청소년기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달시기¹⁾로서, 이 시기에 일어나는 질적변화들은 사회환경(context)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²⁾ 따라서 건강한 환경의 제공은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위주의 정책결과로 부정적인 가치관이 사회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굴절된 사회현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주요한 생활환경인 가정과 학교환경도 청소년의 건강한 인성 발달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일차적인 환경으로서의 가정은 핵가족화 현상과 내 자녀, 내 가족만 잘되면 그만인

* 이 논문은 1994학년도 연세대학교 교내연구비와 사회복지법인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태화사회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

1) Cohen, L. H., Burt, C. E. and Bjorck, J., "Life stress and adjustment: Effects of life events experience by you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1987, pp. 583-592; Richardson, R. A., Abramowitz, R., Asp, C. E. and Petersen, A. C.,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c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1986, pp. 805-811.

2) Kaplan, H. B., "The relationship of social interest to cooperative behavior,"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34, 1978, pp. 36-39.

라는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으며, 학교교육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건전한 자아성장을 도모하기 보다는 이기적인 성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세상을 요령있게 살아가는 편법들을 터득하는 극심한 갈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³⁾

이렇듯 전례없이 악화된 사회환경들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많은 청소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청소년들 중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58.5%와 53.1%가 각각 가출과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40% 정도만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며⁴⁾, 30% 정도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고 있다⁵⁾는 연구결과들은 우리 청소년의 현재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한 단면들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와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얽매어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그들의 인성형성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및 도덕성 발달수준이 서구의 청소년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⁶⁾

건전한 책임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비행예방은 물론 사회전체의 공익 증진과 공동체 사회의 재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이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어떤 측면에 도움이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한국의 문헌들은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험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주로 이념적, 철학적 사변에 의해 기술된 것들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거나 보다는 직관적인 성격이 강하다.⁷⁾ 따라서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과 청소년의 인성발달에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

3) 김문조·김원동·서용석·김혜영, 「한국청소년의 의식세계 - 인성발달론적 관점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5, p. 131.

4) 권이중·김문조·김선엽, 「한국10대청소년의 의식구조 - 생활세계적접근 -」, 서울: 삼성복지재단, 1994, p. 138; 김문조 외, 앞의 글, p. 52.

5) 김광일·원호택·김이영·김명정,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연구(I)”, 「정신건강연구」, 1, 1983, p. 34.

6) 서봉연, “한국과 서독 청소년의 Identity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연구」, 2, 1979, pp. 114-138; 송명자, “한국 중·고·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진단 및 평가 (I): 사회적 규범 및 책임판단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994, p. 50.

7) 조휘일, “한국대학생 자원봉사활동성화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사회사업」, 우계어윤배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94, p. 188.

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과 일생을 살아가는 데 원칙으로 삼게될 일련의 가치인 도덕성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이 일정기간(6개월) 후에도 지속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에서 수행되었다.

II. 청소년과 자원봉사활동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및 기대효과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정립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데 원칙으로 삼게될 일련의 가치인 도덕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다.⁹⁾ 그런데 자아정체성과 도덕성은 사회문화적 맥락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그리고 다양한 교과외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발달된다. 따라서 자아정체성과 도덕성을 통합시킬 수 있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사회참여의 기회로서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하다.¹⁰⁾

특히 개인의 성격은 환경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형성되며,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적절히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태학적 관점¹¹⁾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 형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 즉 사회참여의 기회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 기회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인간교육¹²⁾과 Dewey의 교육철학¹³⁾에서도 잘 나타나 있으며,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청소년

8) Serventi, D. L., "The perceived motivations and benefits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a university student volunteer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1980, p. 5.

9) Hoffman, M. L., "Moral development," in M.H. Bornstein and M. E. Lamb(eds.),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Jersey; Lawrence Erlbaum.Hoffman, 1984, pp. 279-324.

10) National Commission on Resources for Youth, *New roles for early adolescents: In schools and communities*, New York: Author, 1981.

11) Gitterman, A. and German, C. B., "Education for practice: Teaching about the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17(3), 1981, pp. 44-51.

12) 개인의 특성을 자기수련, 사회행동에서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규칙준수를 통해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 인간교육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교육은 사회참여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올바른 자기판단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13) 정규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경험교육을 강조한 Dewey는 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년 자원봉사활동의 목표 설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새로운 환경으로서 사회참여의 경험인 자원봉사활동은 성인기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에 큰 도움을 줄¹⁴⁾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⁵⁾

이러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건전한 인격 형성 및 자기존재의 의미와 자기존중의 정신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둘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타인과 협력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기발전과 성숙에 기반이 되는 사회성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하게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취미향상과 여가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취미에 맞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가치 있는 삶의 체험을 통하여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실천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체험하게 하여, 이상적인 공동체 삶에 대한 기초를 확립해 준다.

다섯째, 청소년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가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다.

여섯째,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일곱째,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잠재적인 지도력을 개발하여 학습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

여덟째,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는 자발정신과 협동정신, 책임감을 일깨워 줌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시킨다.

아홉째,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현실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사회참여 정신의 함양에 도움을 준다.

열번째,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행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울

실에서의 수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한 대인간의 상호작용 또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Dewey, J., "The need for a philosophy of education," in R. D. Archambault(ed.), *John Dewey on education: Selected writin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p. 3-14.

- 14) Manning, D. L., "Service-learning and the transition of youth to adulthood,"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Bulletin*, 63, 1979, pp. 85-86.
- 15) Carnegie Foundation Advisory and Project Committee, *Report of the National Task Force on citizenship*, New York: McGraw-Hill. Carnegie Foundation, 1977.
- 16) 김동배·조학래, 『청소년 자원봉사의 길잡이』, 서울: 동인, 1996, pp. 31-32; 한국여성개발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4, pp. 14-15.

바로 이해하고, 불건전한 일탈행동을 예방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학습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게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

한편, Conrad와 Hedin(1989)은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의 영역들을 <표 1>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지적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1> 자원봉사활동의 기대효과 영역

기대효과 영역	내 용
개인적 성장과 발달	자아존중감, 개인적 유능감, 자아와 도덕발달, 새로운 역할과 관심의 탐색, 새로운 도전의 수용과 위험의 감수, 가치와 신념의 수정과 강화, 책임감의 향상, 자기행동의 결과에 대한 수용
지적 성장과 발달	기본적인 학업기술(생각의 표현, 읽기, 계산하기), 높은 수준의 사고기술(편견없는 태도,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봉사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과 기술,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기술(관찰, 질문, 지식에 적용), 지식의 습득과 보유에 대한 동기,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꼭 알아야 할 통찰력, 판단 및 이해
사회적 성장과 발달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성, 정치적 유능성, 민주시민의 참여정신 함양, 자원봉사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지식과 탐색, 다양한 배경과 삶의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평가

출처: Conrad, D., & Hedin, D.,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A review of research and programs, Madison: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9, pp. 19-20.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하나의 독립변인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은 그 개념을 규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자원봉사기관에서조차도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종류의 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원봉사자의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을¹⁷⁾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는지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중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iecken(1952)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빈민지역에서 근로봉사활동을 하게 하였다. 통제집단은 없었지만, 2개월 후에 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감정이입적(empathy)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편견이 줄어들었고, 보다 민주적이 되었으며, 보다 봉사지향적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¹⁸⁾

Smith(1966)는 평화봉사단으로 2년동안 가나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4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년후에 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처음 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가하였고, 자아존중감과 통찰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¹⁹⁾

Conrad와 Hedin(1982)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문제해결 능력이 더 향상되었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과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하고 있다.²⁰⁾ 이와 비슷한 결과가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4-H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²¹⁾ 즉 자원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Luchs(1981)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²²⁾ Newmann과 Rutter(1983)도 정규수업에서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성과 개인적 유능성(personal competence)에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²³⁾

-
- 17) Conrad, D. and Hedin, D.,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A review of research and programs*, Madison: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9, p. 21.
 - 18) Riecken, H. W., *The volunteer work camp: A psychological evalu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52.
 - 19) Smith, M., "Explanation in competence: A study of Peace Corps teachers in Ghana," *American Psychology*, 21, 1966, pp. 555-566.
 - 20) Conrad, D. and Hedin, D., "The impact of experiential education on adolescent development," *Child & Youth Service*, 4(3/4), 1982, pp. 57-76.
 - 21) Hamilton, S. F. and Fenzel, L. M., "The impact of volunteer experience on adolescent social development: Evidence of program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1988, pp. 65-80.
 - 22) Luchs, K. P., "Selected changes in urban high school students after participation in community-based learning and service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1981.
 - 23) Newmann, F. M. and Rutter, R. A., "A profile of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이와 같은 양적 조사 외에도, 자원봉사에 참여한 4,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약 75%의 학생들이 정규수업에서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 혹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는 질적 조사자료가 있다.²⁴⁾ 이와 비슷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다.²⁵⁾ 즉 학생들의 신문기사를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 경험에 대해 95% 정도의 학생들이 정규수업에서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 혹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Kohlberg(1969)와 Loevinger(1976)의 발달이론에 초점을 두고,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도덕성과 자아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자아발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⁶⁾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로 볼 때, 청소년기에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통제집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단적인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효과와 그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결여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제한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주요개념의 조작화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자원봉사활동 : 12개 기관에서의 30시간의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을 말한다.

programs,” *Education Leadership*, 43, 1983, pp. 65-71.

24) Conrad and Hedin, *op. cit.*

25) Hedin, D. and Conrad, D., “Service: A Pathway to Knowledge,” *Community Education Journal*, 15, 1987, pp. 10-14.

26) Coggnetta, P. V. and Sprinthall, N. A., “Students as teachers: Role taking as a means of promoting psychological and ethical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in N. A. Sprinthall and R. L. Mosher(eds.), *Value development as the aim of education*, Schenectady, New York: Character Research Press, 1978, pp. 53-68.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2) 자아정체성 : 자아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변화되는 자기자신에 대한 느낌 또는 개체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최정훈 등(1986)이 개발한 27개 문항의 총점으로 측정한다.
- 3) 도덕성 : 도덕성이란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결합된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Berkowitz와 Lutterman(1968), Wrightman(1974), 그리고 Zalusky(1988)의 척도를 재구성한 18개 문항의 총점으로 측정한다.
- 4) 자원봉사활동의 기대효과(benefit) :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12가지 영역에서의 도움정도를 말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만일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은 일정기간(6개월) 후에도 지속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자아정체성 발달과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

가설 1-1: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자아정체성 발달에서 더 높은 향상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학생인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 전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6개월 후의 자아정체성 발달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2) 도덕성 발달과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

가설 2-1: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도덕성 발달에서 더 높은 향상이 있을 것이다.

가설 2-2: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학생인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 전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6개월 후의 도덕성 발달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3. 조사도구

1) 조사내용

본 조사의 내용은 자아정체성, 도덕성, 그리고 배경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후와 추후조사의 내용도 동일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조사내용을 반복해서 실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학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각 조사내용의 문항 순서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성으로 구성된 도덕성,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효과 영역 등이다.

(1) 자아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최정훈 등(1986)이 제작한 자아정체성 척도²⁷⁾를 자아정체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것으로서 Erikson이 언급한 자아정체성의 7개 측면을 표현하는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표현이 중복되는 문항은 빼고, 수정하여 2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²⁸⁾ 요인 적재치가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27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 사용한 27개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Bartlett 검증에서 KMO 지수는 .879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변수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AIC의 중심대각선의 상관계수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자기보고식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자아정체성 점수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까지로서,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성의 발달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정체성 조사도구의 신뢰도²⁹⁾는 Cronbach's alpha=.92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 27) 최정훈 외, 『고교생과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1986.
- 2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정체성과 도덕성에 대한 조사도구는 등간척도나 비율척도의 사용, 변인간의 상호 직선적인 관계유지 및 이원정상분포라는 요인분석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최소한의 요인에 집약시킬 때 사용하는 요인분석방법 중에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직교회전(varimax rota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정대연, 『사회통계학』, 서울: 백산서당, 1992, pp. 642-676.
- 29) 5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는 alpha=.918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5주 후에 실시한 재검사 신뢰도³⁰⁾ 역시 실험집단은 $\alpha=.952$, 통제집단은 $\alpha=.962$ 로 나타난 결과로 보아 자아정체성의 조사도구가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정체성 조사도구는 Erikson의 정의와 Marcia의 이론을 틀로 하여 만들어진 자아정체성 척도에 근거하여 추출한 것이므로 내용타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사도구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구성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도덕성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을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결합된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도덕성을 측정할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Wrightsman(1974)의 이타성 척도³¹⁾, Berkowitz와 Lutterman(1968)의 사회적 책임성 척도³²⁾ 그리고 Zalusky(1988)의 사회적 관심 척도³³⁾를 기초로 하여 20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치가 낮은 2개 문항을 제외하고, 18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 사용한 18개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Bartlett 검증에서 KMO 지수는 .88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변수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AIC의 중심대각선의 상관계수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자기보고식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도덕성 점수는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까지로서, 총점이 높을수록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덕성 조사도구의 신뢰도³⁴⁾는 $\alpha=.907$ 로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4-5주 후에 실시한 재검사 신뢰도도 실험집단이 $\alpha=.934$ 이고, 통제집단은 $\alpha=.936$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도덕성의 조사도구가 매우 높은 내적

30) 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는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험자 집단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얻은 두 검사점수간의 상관계수에 의하여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시행시기가 1개월일 경우 $\alpha=.690$ 이상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고려된다. Cronbach, L. J., *Essentials of Psychological Testing*, New York: Macmillan, 1970, p. 144.

31) Wrightsman, L. S., *Assumptions about human natur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Monterey, CA: Brooks/Cole, 1974.

32) Berkowitz, L. and Lutterman, K., "The traditionally socially responsible personality," *Public Opinion Quarterly*, 32, 1968, pp. 169-185.

33) Zalusky, S., "Social Responsibility and Empathy in Adolescent Volunte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Los Angeles, 1988.

34) 예비조사에서 신뢰도는 $\alpha=.904$ 로 나타났다.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도덕성 조사도구는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선행 연구와 척도에 근거하여 추출된 것이므로 내용타당도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도구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구성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들은 자원봉사에 관한 문헌³⁵⁾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증진, 사회문제를 이해하는 기회,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 공동체 의식의 향상,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생각하는 계기,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있게 만드는 계기, 가족간의 대화 및 관계에 도움,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자각의 계기,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하는 기회, 걱정이나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배우는 기회 등 12개 문항을 선정하여 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자기보고식 평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대효과의 각 영역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 영역의 신뢰도는 $\alpha=.845$ 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였다. 즉 30시간의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실험집단으로, 할 의사는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4.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4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다.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남과 강북의 접촉가능한 20여 공립과 사립학교에 협조요청을 하였다. 강남에 위치한 학교로부터는 연구협조를 얻지 못하였고, 강북에 위치한 사립학교들로부터 연구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동의한 학교에 연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 학교장의 승인하에 강북의 4개 고등학교를 대상학교로 결정하였다. 계열과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된 학교는 대신고교, 대동상고, 이화여고, 경성여실 등 4개교이다.

35) Conrad and Hedin, *op. cit.*; 김옥라-김현자, 「사랑의 공동체」, 서울: 희성출판사, 1989; 한국여성개발원, 앞의 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자료수집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사전(1차)조사는 4개 고등학교가 선정된 뒤 1994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각 학교의 1, 2학년 학급 중 무작위로 3-4 학급을 선정하여 담임선생님의 주관하에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한 학생 가운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376명이었다. 이 학생들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186명의 학생들을 실험집단으로, 여러 이유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190명의 학생들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사후(2차)조사는 여름방학 종료 직후인 1994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186명의 실험집단 학생들 중 3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완수한 170명은 연구자의 주관하에, 그리고 190명의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담임교사의 주관하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추후(3차)조사는 사후조사가 끝난지 6개월 후인 1995년 2월 23일부터 2월 25일 사이 본 연구자가 각 학교의 협조하에 사후조사와 동일한 설문내용을 실험집단의 170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일부항목에 대한 기입이 누락된 2명을 제외하고 168명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통제집단의 학생은 190명이 표집되었지만, 5명은 일부항목에 기입을 누락하였거나 같은 번호에 일률적으로 기입하여 일차적으로 제외하였다. 185명이 있었지만, 통계분석에 있어서 제일종 오류(type I error)의 감소와 통계적 검증력의 강화를 위해 실험집단의 표집크기와 같은 168명을 성별, 학년, 계열 등을 결합(match)하여 단순 무작위 표집법으로 추출하였다.

한편, 자원봉사활동 기관의 선정은 기존의 자원봉사자 활용기관과 공공기관³⁶⁾을 접촉하여 연구협조 의뢰공문을 보내고, 이에 동의한 12개 기관을 결정하였다. 학생들의 배치는 각 기관의 관리능력과 본인들의 활동 희망치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연구자에 의해 2시간에 걸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았다. 또한 각 기관에서도 기관 소개 및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부착하고 여름방학 동안 총 3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12개 자원봉사활동 기관명, 활동내용, 봉사자 수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청소년이 3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시의회, 경찰청, 구청, 소방서, 박물관 등의 공공기관을 접촉하였으나, 할 일이 없거나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지 못했다.

<표 2> 자원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내용

봉사활동 기관	봉사활동 내용	명 (%)
환경운동연합	환경자료 정리, 환경운동 발행보조, 한강감시단 활동,	25 (14.9)
영동세브란스병원	응급실·약국 안내, 입원절차 수속, 중앙부 및 재활의학과 봉사	24 (14.3)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위치·응급실 안내, 도서봉사, 의무기록과 차트정리	24 (14.3)
서울 YWCA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 활동	19 (11.3)
연세대중앙도서관	서가배열 및 도서정리	17 (10.1)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소비자운동 및 에너지 실태조사활동	16 (9.5)
이대목동병원	도서대여 및 의무기록 지원	15 (8.9)
은평천사원	정신지체아동 일상생활 지도	7 (4.2)
신양교회지역사회선교관	공부방 보조교사, 도서 및 물품정리	7 (4.2)
서울 YMCA	환경감시활동 및 중학생 캠프보조	6 (3.6)
천사양로원	말벗, 휠체어 산책, 노력봉사	6 (3.6)
남부장애평합복지관	식사보조, 말벗, 휠체어 산책	2 (1.2)

5.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작업(coding)과 오류검토작업(error checking)을 거친 뒤 SPSS 통계 패키지(Ver 5.0)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자아정체성과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을, 구성타당도의 검증을 위하여는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분석을, 자아정체성과 도덕성의 하위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배경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과 두 집단간 차이검증(t-test)을,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간 차이검증(t-test)을 사용하였으며, 자

원봉사활동 경험의 영향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짝표본평균의 차이검증(paired t-test)과 공변량 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계열, 종교, 생활수준, 학업성적 등이 포함되었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두 집단 모두 여학생(54.8%)이 남학생(45.2%)보다, 2학년(56.5%)이 1학년(43.5%)보다, 그리고 인문계(58.9%)가 실업계(41.1%)보다 약간 많이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 분포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집단의 경우 기독교(45.2%)가 가장 많았고, 불교(13.7%), 천주교(6.0%) 순이며, 종교가 없는 경우는 35.1%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경우도 기독교(48.8%)가 가장 많았고, 불교와 천주교가 각각 8.9%이며, 종교가 없는 경우는 33.3%로 나타났다.

주관적 평가에 따른 생활수준에서도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집단의 경우, 중간 정도이다(60.7%)가 가장 많았고,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25.0%), 어려운 편이다(11.3%), 매우 잘 사는 편이다(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경우도 중간 정도이다(59.5%)가 가장 많았고,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24.4%), 어려운 편이다(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통제집단의 경우는 중간 정도이다(49.4%)가 가장 많았고, 잘하는 편이다(32.7%), 아주 잘하는 편이다(9.5%), 못하는 편이다(6.0%), 매우 못하는 편이다(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경우도 중간 정도이다(48.2%)가 가장 많고, 잘하는 편이다(35.1%), 아주 잘하는 편이다(10.1%), 못하는 편이다(5.4%), 매우 못하는 편이다(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보아, 대체로 자신의 학업성적이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약간 많이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구 분	통제집단	실험집단	전 체	
성 별				
남 자	76 (45.2)	76 (45.2)	152 (45.2)	
여 자	92 (54.8)	92 (54.8)	184 (54.8)	
학 년				
1	73 (43.5)	73 (43.5)	146 (43.5)	
2	95 (56.5)	95 (56.5)	190 (56.5)	
계 열				
인 문	99 (58.9)	99 (58.9)	198 (58.9)	
실 업	69 (41.1)	69 (41.1)	138 (41.1)	
종 교				
기독교	76 (45.2)	82 (48.8)	158 (47.0)	
천주교	10 (6.0)	15 (8.9)	25 (7.4)	
불 교	23 (13.7)	15 (8.9)	38 (11.3)	
없 음	59 (35.1)	56 (33.3)	115 (34.2)	
$\chi^2=2.990, df=3, N.S.$				
생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5 (3.0)	-	5 (1.5)	
잘 사는 편	42 (25.0)	41 (24.4)	83 (24.7)	
중간 정도	102 (60.7)	100 (59.5)	202 (60.1)	
어려운 편	19 (11.3)	27 (16.1)	46 (13.7)	
$t=1.49, df=334, N.S.$				
학업성적				
매우 잘하는 편	16 (9.5)	17 (10.1)	33 (9.8)	
잘하는 편	55 (32.7)	59 (35.1)	114 (33.9)	
중간 정도	83 (49.4)	81 (48.2)	164 (48.8)	
못하는 편	10 (6.0)	9 (5.4)	19 (5.7)	
매우 못하는 편	4 (2.4)	2 (1.2)	6 (1.7)	
$t=.74, df=334, N.S.$				
계	168(100.0)	168(100.0)	336(100.0)	

* N.S. : p>.05

2.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평가

1) 참여동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물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봉사활동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주요 동기는 ‘남을 돕고 싶어서’가 44.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가 25.0%,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가 21.4%, ‘새로운 친구나 경험을 얻기 위해서’가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참여동기	N (%)		
	남 자	여 자	전 체
남을 돕고 싶어서	28 (36.8)	47 (51.1)	75 (44.7)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27 (35.5)	15 (16.3)	42 (25.0)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16 (21.1)	20 (21.7)	36 (21.4)
새로운 친구나 경험을 얻기 위해	5 (6.6)	10 (10.9)	15 (9.0)
계	76(100.0)	92(100.0)	168(100.0)

$$\chi^2=8.910, df=3, p<.05$$

한편,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8.910, p<.05$).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의 경우는 ‘남을 돕고 싶어서’(36.8%)와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35.5%)가 참여동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여학생은 ‘남을 돕고 싶어서’가 51.1%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보아, 여학생들(51.1%)이 남학생들(36.8%)보다 이타적 동기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가 45.8%로 가장 많고, ‘매우 만족한다’가 38.1%, ‘약간 불만이다’는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만족하는 비율(83.9%)이 불만족하는 비율(16.1%)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은 대체로 이번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1.443, p<.01$). 즉 남학생들(51.3%)이 여학생들(27.2%)보다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보아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성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만족정도	N (%)		
	남 자	여 자	전 체
불 만	12 (15.8)	15 (16.3)	27 (16.1)
만 족	25 (32.9)	52 (56.5)	77 (45.8)
매우 만족	39 (51.3)	25 (27.2)	64 (38.1)
계	76(100.0)	92(100.0)	168(100.0)

$\chi^2=11.443, df=2, p<.01$

3)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여부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의향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의향이 있다'가 96.4%를 차지하는 반면, '없다'는 3.6%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대다수의 학생들은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향 여부

향후 활동 의향 여부	사례수	비율(%)
있 다	162	96.4
없 다	6	3.6
계	168	100.0

이상과 같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평가를 요약해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로는 '남을 돕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타적 동기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83.9%나 되었고, 96.4%는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자아정체성 발달과 자원봉사활동

1)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자아정체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자아정체성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자아정체성의 발달수준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동질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t=0.65$, N.S.).

<표 7> 집단간 사전 자아정체성에 대한 t 검증 결과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df	p
실험	168	91.791	12.049	0.65	334	N.S.
통제	168	90.898	13.110			

* N.S. : $p>.05$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직후에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후 자아정체성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4.53$, $p<.001$).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사후조사에서는 3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수준이 통제집단의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하여 자아정체성 발달에서 더 높은 향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1-1>은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표 8> 집단간 사후 자아정체성에 대한 t 검증 결과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df	p
실험	168	97.845	11.468	4.53	334	.000
통제	168	91.839	12.801			

2)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영향의 지속성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그 영향이 일정기간(6개월) 이후에도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학생들의 사전과 추후 자아정체성 점수에 대해 짝표본평균의 차이검증(paired t - 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자아정체성의 발달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5.58, p<.001$). 즉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의 자아정체성 발달수준과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끝낸 6개월 후의 자아정체성 발달수준을 비교해 볼 때, 추후 자아정체성 발달수준이 사전 자아정체성 발달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의 효과로서 향상된 자아정체성의 발달수준이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 전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시 6개월 후의 자아정체성 발달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1-2>는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표 9> 실험집단 자아정체성 사전 - 추후 paired t 검증 결과

시기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df	p
사전	168	91.791	12.049	-15.58	167	.000
추후	168	97.392	11.433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이후에도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도덕성 발달과 자원봉사활동

1)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도덕성 발달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성 발달수준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68, p<.01$). 즉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한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도덕성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동기 중에서 '남을 돕고 싶어서'라는 이타적인 동기가 44.7%나 되는 것과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방학기간 동안 3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무선배치(random assignment)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도덕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도덕성 발달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후 도덕성 발달수준이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효과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각 집단의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공변량 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사전처치 차이(pretreatment difference)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³⁷⁾

<표 10> 집단간 사전 도덕성에 대한 t 검증 결과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df	p
실험	168	65.000	7.662	2.68	334	.008
통제	168	62.821	7.223			

도덕성의 사전점수를 통제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공변량인 사전 도덕성 점수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도덕성 발달수준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공변량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84.296$, $p<.001$).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결합된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하여 도덕성 발달에서 더 높은 향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2-1>은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표 11> 도덕성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p
Covariates	17680.862	1	17680.862	2482.150	.000
Main Effects	2025.099	1	2025.099	284.296	.000
Explained	19705.961	2	9852.981	1383.223	.000
Residual	2372.027	333	7.123		
Total	22077.988	335	65.904		

* 실험집단(N=168) 사전평균: 65.000, 사후평균: 68.904

** 통제집단(N=168) 사전평균: 62.821, 사후평균: 61.948

37) 오택섭,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서울: 나남, 1990, p. 177.

2)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영향의 지속성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그 영향이 일정기간(6개월) 이후에도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도덕성 발달에 대한 사전과 추후검사간에 짝표본평균의 차이검증(paired t - 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와 같이, 도덕성의 발달수준에서 사전과 추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33, p<.001$). 즉 사전의 도덕성 발달수준보다 추후의 발달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으로 인해 향상된 도덕성 발달수준이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전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시 6개월 후의 도덕성 발달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2-2>는 경험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다.

<표 12> 실험집단 도덕성 사전 - 추후 paired t 검증 결과

시기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df	p
사전	168	65.000	7.662	-6.33	167	.000
추후	168	67.047	7.07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기대효과(expected benefit)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익이나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거나 이익이 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12개 영역을 선정하여,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어떤 영역에서 특히 도움이거나 이익이 되는지를 청소년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치에 준한 서열과 긍정적인 응답 사례의 비율에 준한 서열 방법을 비교해 보았다. 이런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 방법에 준해 얻어진 서열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의 분포형태에 따라 다른 서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서열들은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것이다.³⁸⁾

<표 13>에 나타난대로, 두 가지 방법에 준한 서열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먼저 평균치에 준한 서열을 살펴보면,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됨’이 4.19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의미있는 삶의 계기가 됨’이 4.195, ‘새로운 경험과 기술습득의 기회가 됨’이 4.161,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함’이 4.155, ‘사회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자각함’이 3.940,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의 기회가 됨’이 3.869,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게 됨’이 3.786,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향상됨’이 3.774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범주에 의한 서열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활용’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함’ 등의 항목에 85.2%나 긍정적인 동의를 하였다. 이어서 ‘새로운 경험과 기술 습득의 기회’가 84.0%, ‘의미 있는 삶의 계기’가 81.0%,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자각’이 79.7%,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게 됨’이 69.1%,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의 기회가 됨’이 69.0%,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향상’에 67.3%가 긍정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자원봉사활동의 기대효과 영역

		N=168			
변	인	평균 [†]	서열	비율 [‡]	서열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됨		4.196	1	85.2	1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계기가 됨		4.195	2	81.0	4
새로운 경험/기술 습득의 기회가 됨		4.161	3	84.0	3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4.155	4	85.2	1
사회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자각함		3.940	5	79.7	5
사회문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됨		3.869	6	69.0	7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게 됨		3.786	7	69.1	6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향상됨		3.774	8	67.3	8
잠재능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됨		3.429	9	47.0	9
직업이나 진로의 결정에 도움이 됨		3.101	10	32.8	11
가족간의 대화와 관계에 도움이 됨		3.060	11	33.4	10
걱정이나 고민거리 해결에 도움이 됨		2.744	12	17.3	12

†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의 평균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함

‡ 긍정적으로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한 사례의 비율임

38) Sung, K. T., “Converging Perspectives of Consumers and Providers in Assessing Needs of Famili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2(3), 1989, pp. 1-29.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원봉사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나 이익이 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활용', '의미 있는 삶의 계기', '새로운 경험과 기술습득의 기회', '대인관계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자각' 등의 기대효과 영역에서 청소년에게 더 많은 도움과 이익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재능력의 발견기회', '가족간의 대화와 관계에 도움', '진로결정에 도움', 그리고 '고민거리 해결에 도움' 등의 영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12가지 기대효과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몇가지 영역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전교육의 실시와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그리고 기관의 실무자, 교사 및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지도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과 일생을 살아가는 데 원칙으로 삼게 될 일련의 가치인 도덕성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어떤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이 일정기간(6개월) 이후에도 지속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런 경험의 효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6개월 이후에도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여러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나 이익이 되는 활동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활용', '의미있는 삶의 계기', '새로운 경험과 기술습득의 기회', '대인관계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자각' 등의 기대효과 영역에서 청소년에게 더 많은 도움과 이익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기의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발달의 지표인 자아정체성과 한 사회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가치인 도덕성의 발달에 긍정적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영향을 주는 동시에, 향상된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수준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타인과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숭고한 원리가 어린시절에는 당위적 생활규범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되면서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그 설득력을 상실해가는 현상에서³⁹⁾, 체계적으로 준비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관념적 수준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당위적 원리를 행위적 수준의 현실원리로서 내면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대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한편,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집단을 무작위로 표집하지 못했다는 조사의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최초의 종단적인 실험연구로서 의의를 가지며, 연구결과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나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인간교육의 일환으로 현재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강제적인 (compulsory) 봉사활동이 실시되었다. 모든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된 청소년봉사활동은 진정한 인성교육의 효과와 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의 고귀한 정신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봉사의 의미를 벗어난 활동이며 학생 자신, 자원봉사기관, 봉사대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를 진학한 이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외면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청소년봉사활동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봉사의 기쁨과 의미를 맛보게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조력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9) 김문조 외, 앞의 글, p. 130.